"뜻으로 푼 금강경, 이젠 소리로 전해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5주기 추모다례재 봉행

"글을 외워서 배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외워가지고 그 외운 거는 다 버리더라도 그 뜻을 읽다보면 때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이 나거든요." - 대행 스님

추모 영상 속에서 '경전의 글자를 외우는 데 치우치기 보다 그 뜻을 새겨야 한다'는 대행 스님의 생전 법문이 흘러나오자, 법당에 모인 대중들 사이에서는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숙한 분위기도 잠시,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대중들은 힘차게 금강경 독송을 이어갔다.

여러 방면에서 근현대 한국불교를 선도해 왔던 대행 스님의 열반 5주기를 맞아 4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는 본원과 부산, 대구, 광주, 태국 등 국내외 지원에서 온 3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다례재가 엄수됐다. 특히 이날 다례재에서는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음반이 봉정됐다.

다례재는 예불에 이어 음반 봉정, 고불문 봉독, 헌향 및 헌다 헌화, 추모영상 상영, 금강경 독송 등으로 진행됐다.

"첫 소절을 시작하면 부산했던 마음이 어느새 집중이 되면서 독송하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어요."

다례재 중 상영된 추모영상에서는

〈뜻으로 푼 금강경〉 음반 제작
3천여 대중 합송, 가르침 되새겨
"법음 온누리에 퍼지길" 기원

대행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글자로 알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법문과 함께 뜻으로 푼 경전을 접한 불자어린이들의 소감과 매일 출퇴근 차량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는 선원 신도들의 사연이 소개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이 〈뜻으로 푼 금강경〉 음반을 대행 스님 진영에 봉정하고 있다.

은 고불문을 통해 "은사이신 대행 선사께서 뜻으로 풀이한 우리말 금강경을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의 독송으로 음원을 만들어 널리 세상에 전하게 되었음을 고하옵니다"며 "뜻으로 새겨 실생활에 활용하게 하고자 스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풀이 하셨으니, 소리로 만들어 전달함에, 이 법음이 온누리에 두루퍼져 마음 속 무명번뇌는 보리심으로 깨어나고 삼독심은 대자비로 화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뜻풀이 금강경 음원을 녹음한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의 선창을 따라 대중들은 1시간여 동안 금강경 합송을 진행했다. 독송 소리가 선원에 울려퍼지는 가운데 선원 신도들은 대행 스님 진영에 차례로 헌화를 했다.

인묵 스님은 "평소 대행 스님의 구법수행과 포교원력을 많이 들어왔던 차인데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 뜻풀이 금강경에 담겨있는 스님의 깊은 뜻을 잘 드러내지 못했을까 송구한 마음도 든다"라며 "사실 우리말 경전에 음운을 붙이는게 쉽지 않았다. 음반이 나오게 많은 이들의 정성이 있었고, 큰스님의 가피가 있어 나오게 됐다. 눈으로도 보지만, 음성을 통해서도 금강경의 깊은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내빈으로 참가한 청암사 회주 지형 스님은 "대행 스님께서는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다. 스님이 금강경을 뜻으로 푸신지 20년이 돼가는데 이제 이렇게 녹음이 돼서 나와 어디를 갈 때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좋으실 듯하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 한마음선원을 시작으로 온 세계에 평화와 자비광명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다례재에서 봉정된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은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 e-book 및 Mp3 음원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자신의 근본 알아차리게
이해 쉬운 용어로 해설

대행 스님의 번역은 경전이 갖고 있는 본의(本義)를 깨달음의 눈으로 살펴 그 가르침의 핵심에 닿을 수 있게 풀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1987년 한마음선원에서 출간된 의식법요집 〈신행요전〉에는 뜻으로 푼 반야심경과 천수경, 예불문의 상당부분이 우리말로 실려 있었다. 이후 대행 스님은 1990년대 초반 금강경을 뜻으로 푸는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스님의 열반 5주기를 맞아 조계종 의례위원회 위원장인 인묵 스님의 독경으로 〈뜻으로 푼 금강경〉이 음원으로 제작됐다. 아이들도 따라 읽으며 어릴 때부터 자신의 밝은 근본을 알아차리게 이끄는 스님의 우리말 경전은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빛이 되어 길을 밝혀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대책위, 서울시와 실무협의체 구성

현대차 GBC 관련 협의 추진

현대자동차 글로벌신사옥(GBC) 건립과 관련해 서울광장서 400여일간 정진법당을 운영해온 조계종 봉은사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와 서울시가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봉은사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위원장 지현 · 원명)는 "서울시와 사전협의 끝에 4월 17일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광장에 설치한 정진법당 기도정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광장 정진법당 잠정중단
현대차와 우호적 관계 노력

이날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1200년 역사의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시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게 됐다"면서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협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GBC 건립과 관련한 의견 등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협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봉은사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서울시와의 합의에 따라 정진법당을 401일 만에 잠정중단하게 됐다"며 "서울시와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될 실무협의체 속에서 발전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봉은사 역사문화환경이 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책위는 4월 2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서 '한전부지 개발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현대차 GBC 건립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다시 제기했다. 발제자로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 김봉석 변호사, 이병인 · 홍석환 부산대 교수가 나섰다.

이병인 부산대 교수(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는 'GBC개발 환경영향평가 종합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GBC 환경영향평가상의 문제점으로 △환경영향조사 미비 및 누락 △예측과 평가 축소 및 부실 △환경영향범위와 평가항목 누락 △저감방안 제시 미비 △주민 참여의 문제 △사후환경관리도 매우 형식적 등을 지적했다.

윤호섭 · 박아름 기자

신흥사 주지 후보에 우송 스님 선출

4월 30일 산중총회 열어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후보에 現 주지 우송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신흥사는 4월 30일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인 우송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경쟁후보로 나섰던 前건봉사 주지 영수 스님은 26일 교구선관위에 후보 사퇴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주지후보로 선출된 우송 스님은 25대와 26대에 이어 27대까지 주지소임을 소화하게 됐다.

우송 스님은 1979년 신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제방 선원서 수선안거 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신흥사 부주지 등을 역임한 뒤 2009년부터 신흥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미황사 괘불, 목포에 나투다

해양문화재硏, 6월 4일까지 전시회 개최

미황사 괘불이 목포에 나투셨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해남 미황사 괘불의 역사적 의미와 해양문화와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테마전 '바닷속 영혼을 구원하는 부처, 괘불'을 오는 6월 4일까지 개최한다.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서는 웅장한 불교 회화 속에 담긴 바다 속 영혼의 극락왕생과 당대 중생들의 염원을 '미황사 괘불탱'(보물 제1342호 · 사진)을 통해 조명한다.

미황사 괘불은 영조 3년(1727년)에 조성된 높이 11.9m, 너비 4.84m 규모의 장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미황사는 해마다 10월 괘불재를 열며 괘불을 1년에 단 하루 공개해왔다. 올해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미황사(주지 금강)가 뜻을 모아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테마전'으로 소개하게 됐다. 전시기간 중인 5월 10일에는 특별행사로 미황사가 주관하는 '수륙재'도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바다 속 수중문화재는 수많은 애환을 간직하고 있다"며 "테마전을 통해 바다에서 희생된 넋과 선조들의 염원을 조금이나마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신행 혁신운동史 이념 · 역사 살펴본다

포교원 · 불광硏 13일 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불광연구원은 5월 1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신행 혁신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주제로 봉축기념 공동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2500년 불교사에서 변곡점이 된 주요 신행혁신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살펴본다.

연찬회에서는 총 4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1주제는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붓다와 초기불교의 신행혁신'으로 신 중심의 인도 종교상황에서 보여준 초기불교의 혁신과 신행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2주제는 신상환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이 '대승불교운동과 신행혁신운동'을, 3주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중국 선종과 신행혁신 운동'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4주제는 김성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정토종의 이념과 신행혁신 운동'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 참여불교를 전공한 정경일 박사, 중국 근대불교사를 전공한 김영진 교수가 나선다. 노덕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 이사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정부원장 석화담 승정 석혜암 · 석대원
원로원장 석법령 원로부원장 석일두 원로 석일우 석지허 석지관 석도명 석광운 석보우

총무원장 석도선 부 원 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호법부장 석성보 감찰부장 석성도 조사부장 석담월 사회부장 석청암
규정부장 석운담 의전부장 석성담 교무부장 석보현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도명
교육부장 석정허 총무국장 석성덕 사서국장 석성일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성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우 사회국장 석원각 수행국장 석보각 종무국장 석심공

비구니회회장 석혜담 부회장 석효성 부장 석용정 국장 석지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일공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덕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울산중앙종무원장 석법운

■ 종단법인 운영이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선화. 성덕.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수.
학산. 법광. 혜림. 자운. 혜화. 심공. 원공. 보우. 법현. 일타

■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 (明眞)김진우 / 법무사 : (雲虛)이익렬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원명화(윤영아)

■ 종립예술원
원 장 묘 각(이재인)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국 장 불심화(정형숙)
무 용 무애심(박순애)
연 출 원각심(도지연)

■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혜 충북부장 상학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대전부장 정민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경기부장 덕산 종무국장 도연
경북원장 성인 전남부장 혜명 국제국장 혜월
법사원장 명성 재무부장 자운 부산국장 혜성
청도국장 지천
포교국장 청운
포항국장 혜림
구미국장 혜진
화순국장 보정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